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Keppel-SembCorp 합병 협상 꾸준히 진행

싱가포르 Keppel Corp와 SembCorp Marine의 합병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됨. 2021년말까지 협의를 끝내는 것이 목표지만 늦춰질 수 있다고 발표함. (선박뉴스)

HSFO 수요 감퇴 전망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고유황연료(HSFO) 수요는 감퇴하고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사례도 줄 것으로 보도됨. 싱가포르 항만 HSFO 1~9월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함. 국제 사회의 목표는 2030년까지 2008년대비 평균 -40%, 2050년까지 -70%로 감축하는 것임. 현재 선주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전략은 저속 운항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Gibson: tankers could benefit from Argentina's 'dead cow' bounce

영국 선박 브로커 Gibson은 아르헨티나 Vaca Muerta 유전이 추가적인 탱커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함. COVID-19로 아르헨티나의 원유 수출량은 감소했지만 에너지 시장 환경개선 및 투자 증가로 원유 및 가스 생산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도됨. 아르헨티나의 원유 수출 증가는 suezmax, aframax에 영향을 줌. (Tradewinds)

The only way is up: FSL's Woods says product tanker demand has bottomed out

싱가포르 FSL Trust에 따르면, product tanker 수요는 바닥인 상황임. 적은 원유 생산과 선박 수요로 운임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음. 겨울이 다가오며 주요국의 원유 재고량이 줄고 있어 수요는 올라갈 일만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Containership charter market 'sold out' for 2021 as boom continues

2021년 중대형 컨테이너선 용선이 매진됨. 용선시장의 선박 부족은 16개월 만에 완화된 용선료를 반영함. 대형 컨테이너선이 필요한 선주들은 매입하고 있음. (Tradewinds)

Maersk eyes methanol retrofits for some of its large containerships

Maersk가 9개 신조 대형 컨테이너선을 메탄올 추진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메탄올 추진선으로 변경하는데 탱크, 연료 시스템 추가 등이 필요하고 비용도 비싸지 않다고 설명함. (Tradewinds)